

6월 2일 (금)

‘은혜’

오직 주의 은혜로

성경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15~16)

기도

주님, 제가 세례요한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땀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여기는 것은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죄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조건 없이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 서는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종이 라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代贖)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因)하여 되는 일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오며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6월 3일 (토)

‘소원’

제가 원하는 것

성경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40~42)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무슨 의미(意味)를 갖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지식(知識)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별 볼일 없는 것입니다.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그러나 그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가슴에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얻기 위한 지혜(智慧)와 지식을 주십시오. 비록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한 마음과 넉넉함 그리고 신실함을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알아 갈 수 있는 깨끗하고 신실한 마음을 주십시오. 인생의 혼란함 속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을 간직할 수 있음이 참 행복이요 참 평안의 길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6월 4일 (주일)

평신도주일 예배문

[하나님께서 모임]

전주	반주자	
* 입례송	27장(빛나고 높은 보좌와)	다함께
* 예배로 부름과 기원		집례자
* 경배찬송	10장(전능왕 오셔서)	다함께
* 말씀교육	마태복음 6장(교육문 75번)	다함께
* 삼위영가	3장(성부 성자와 성령)	다함께
오늘의 기도	권사 대표	
주님의 기도	다함께	
기도응답송	찬양대	

[말씀의 선포]

성경봉독	
(1) 구약의 말씀 : 신명기 6:1~5	집사 대표(여)
(2) 신약의 말씀 : 누가복음 14:17~23	집사 대표(남)
(3) 오늘의 말씀 : ()	설교자
찬양	찬양대
설교	설교자

[감사와 응답]

합심기도	말은이	
1.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남선교회 회장)		
2. 감리교회와 100만 전도운동을 위하여 (여선교회 회장)		
3. 교회부흥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청장년선교회 회장)		
신앙고백	다함께	
찬송	289장(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다함께
* 봉헌	50장(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함께
* 봉헌기도	말은이	
평화의 인사	다함께	

[세상으로의 파송]

교회소식	집례자
* 찬송	505장(은 세상 위하여)	다함께
* 파송의 말씀	다함께
* 축도	목사
후주	반주자

(* 표시한 곳은 일러선다)

제 39회

평신도주일

“신뢰 속에
부흥하는 감리교회”

기도문, 예배문

기도 주간 2017. 5. 29(월) ~ 6. 3(토)

평신도주일 2017. 6. 4(주일)

평신도주일은

1979년 3월 총회결의에 의하여 감리회본부에 평신도국을 두고 지방에는 평신도부를 두어 매년 5월 마지막 한 주간과 6월 첫째 주일을 온 교회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평신도가 예수 제자로서, 창치기로서 선교와 봉사를 통하여 안으로는 개인과 교회 성장에 이바지하고 밖으로는 사회구원의 밑알이 되어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쓰임 받게 하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웨슬리 개인의 경건과 절제를 통한 성화와 사회구원을 강조함으로써 매년 5월 24일을 전후로 지키는 웨슬리 회심주간과 6월 첫 주일에 지키는 평신도주일을 연계시켜 회심의 체험을 통하여 사회구원을 위한 헌신 봉사의 계기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주일은 평신도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인식하고 결단을 새롭게 하는 계기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신도를 새롭게 정립하는 평신도의 생일입니다.



주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주최 : 지방 사회평신도부

5월 29일 (월)

‘회개’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성경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에스겔 18:31(상))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지은 죄를 고백할 때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성결(聖潔)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에 내재한 모든 악한 생각들과 불순한 감정들, 잘못된 욕망과 미숙한 생각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시기심과 허영심, 그리고 위선, 거짓과 허위, 남을 속이고 세상에 애착을 갖는 모든 악(惡)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질투와 무관심,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냉랭함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모든 악한 행동들과 정욕, 분노,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을 버리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께만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월 30일 (화)

‘결심’

이렇게 살겠습니다

성경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9~13)

기도

오 주님,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뜻 안에서 행하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해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으며,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게 하옵소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존중하게 하옵소서.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만나면 도움의 손길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분노에 압도되지 않으며, 복수의 열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위선을 멀리하고, 위장된 평화에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속적인 방법들을 거부할 용기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월 31일 (수)

‘겸손’

겸손하게 하소서

성경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6)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주님의 낮아지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늘 보좌 위에서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주재(主宰)이십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세리와 창녀, 걸인과 문둥병자들의 친구가 되었고, 어린 이들의 동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야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이 낮아지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여전히 내(我)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겸손하심을 배우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6월 1일 (목)

‘중보’

주님의 교회를 위한 중보를 원합니다

성경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 1:6)

기도

살아 계신 하나님, 감리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평신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를 보내 주셔서 이 땅에 감리교회를 세우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30여 년 역사 속에 우리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같은 어렵고도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감리교회를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평신도 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감리교회에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에게 특별하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감리교회를 잘 보존하고 성장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감리교회가 실시하는 100만 전도운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 땅에 자랑스러운 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